

# 원하는대로...사진 찍지 않고 만든다

에픽·스노우·비 디스커버·캐럿 등 AI 기술 활용 프로필 사진 앱 인기 신분증·입사지원서 등 사용은 안돼

“사진 몇장으로 미국 졸업앨범 사진을 만들 수 있다고?”

몇 달 전 AI 프로필 사진 열풍에 이어 최근에는 1990년대 미국 졸업 앨범 이어북(Yearbook) 컨셉의 AI 사진이 MZ세대 사이에서 화제다.

기업 회장,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들도 애플리케이션 ‘이어북’ (Yearbook)을 콘셉트로 한 AI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올리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배우 소유진, 방송인 유병재, 댄서 가비 등도 이어북 컨셉의 AI 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미국에서 유학했을 때 저런 사람 본 것 같다’ ‘그냥 진짜 (사진관에서) 찍은 거 아니냐’ 등 실제 사진같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이 서비스는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가 개발한 ‘에픽’ (EPIK) 앱의 ‘AI 이어북’ 상품이다. 앱에 자신의 사진을 올리면 1990년대 미국 졸업사진 콘셉트의 프로필 사진 60장을 AI로 자동 생성해 제공한다.

24시간 내 결과물이 생성되는 ‘스탠다드’는 5500원, 2시간 내 결과물이 나오는 ‘익스프레스’는 8800원이다. 3일 오전 기준 에픽은 앱스토어 인기 순위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유료 서비스임에도 AI 이어북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급증해 현재 일부 서비스 이용이 지연될 정도다.

모바일 데이터 분석 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스노우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인공지능이 만든 1990년대 미국 졸업 앨범 ‘이어북’ (Yearbook)을 콘셉트로 한 AI 사진이 SNS 상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배우 소유진·백종원 부부, 최태원 SK회장 인스타그램 사진 갈무리>

스토어에서 거둔 매출은 총 2000만 달러(약 270억 원)를 돌파했다

에픽뿐만 아니라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비디스커버, 캐럿 등도 AI 사진 편집 앱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카카오브레인은 지난 3월 AI ‘칼로’를 기반으로 한 이미지 생성 플랫폼 ‘비디스커버’에 AI 프로필 생성 서비스를 출시했다. 연령과 성별을 선택하고 사진 파일 하나만 올리면 판타지·타임슬립·일상 등 다양한 콘셉트의 프로필 이미지 100개를 1분 만에 제공한다. 건당 6600원으로 이미지는 결제 후 1년 동안 앱에 저장된다.

스타트업 패러다임이 만든 ‘캐럿’은 6000원에 프로필 사진 30장을 제공하고 있다. 20분 이내에 동화 같은 분위기의 프로필 사진을 받을 수 있다.

AI 프로필은 직접 사진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의 사진을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 이용자들은 ‘전문 사진관을 가지 않아도 될 정

도로 퀄리티가 높다’며 만족한다는 반응이다. 사진관에서 프로필 사진을 찍으려면 보통 5만 원 이상이 드는데, 이에 비해 AI 프로필은 1만 원 이내의 가격으로 비교적 저렴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하지만 AI 프로필은 실제 자신의 사진이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가상인물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 사진으로 사용하거나 입사지원서 사진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에 주민등록증 발급 및 변경 시 AI 프로필 사진은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 홍보물을 부착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이미지 등 변형이 가능한 사진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없다”며 인공지능 프로필 사진을 주민등록증 발급에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 “수백만 목숨 구했다” 코로나 백신 선구자

커털린 커리코·드루 와이스먼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

타임지 선정 ‘올해의 영웅’

한국 제정 ‘박만훈상’도 수상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은 커털린 커리코(68·헝가리) 바이오엔테크 수석부사장과 드루 와이스먼(64·미국) 미 펜실베이니아대의 대교수는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극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연구의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노벨상 의학상 위원회측은 2일(현지시간) 수상을 발표하면서 이들에 대해 “이들은 함께 수백만 목숨을 구했고, 중증 코로나를 막았으며 전체적인 질병의 부담을 완화하고 각 사회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와이스먼 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펜실베이니아 의대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그와 역시 이 곳 특임교수로 재직 중인 커리코 수석부사장의 사진을 게시했다. 홈페이지 소개에 따르면 커리코 수석부사장은 1978년 생물학 학사 학위를 받은 데 이어 1982년 헝가리 세게드 대학교에서 생화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국립보건원(NIH)에서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이끈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 밑에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를 연구하기도 했다.

와이스먼 교수가 펜실베이니아 의대 교수로 옮긴 1997년 이 둘은 처음 만나 mRNA 개발에 30년 가까이 힘을 합하며 평생의 연구 동반자가 됐다.

2008년 커리코 수석부사장과 와이스먼 교수는 mRNA를 변형하는 방법을 개발했고, 이어 mRNA를 지질 나노입자로 포장하는 전달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mRNA를 신체의 필요 부위에 도달시켜 면역 반응을 촉발할 수 있게 했다. 이 기술을 토대로 개발된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은 2020년 영국 정부의 승인으로 세계 최초로 공식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이 됐다.

이 같은 공로로 이 둘은 미국 타임지의 ‘2021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커털린 커리코(오른쪽)와 드루 와이스먼. /연합뉴스

올해의 영웅’으로 선정되고 유명 의학상인 래스커-드베이키 의학연구상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의학·학술·연구 관련 10여개의 유력한 상을 휩쓸었다.

작년에도 유력한 노벨 생리의학상 후보로 꼽혔으며, 이번에도 디어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이 둘은 이 밖에도 ‘일본관 노벨상’으로 불리는 일본국제재단상을 받았다. 일본 국제과학기술재단은 이들의 연구가 코로나19 백신 개발로 이어져 ‘많은 인명을 구하고 팬데믹 종식의 희망을 주는 한편 세계적인 경제손실 줄이기에에도 공헌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이 둘은 국내에서도 지난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첫 제정된 ‘박만훈상’을 수상했다. 박만훈상은 국내 세포배양 백신의 선구자인 고(故) 박만훈 SK바이오사이언스 부회장의 업적을 기리고자 SK바이오사이언스와 국제백신연구소(IVI)가 공동 제정한 상이다. 커리코 수석부사장의 딸 수전 폴렌시아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미국 조정 대표팀으로 출전, 두 차례 금메달을 딴 유명 조정선수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 국립광주과학관 ‘아트사이언스’ 가을향기 속으로

6~15일 페스티벌...3개 테마 전시·체험·공연

과학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가을 과학문화축제가 광주에서 열린다.

국립광주과학관(관장직무대리 전태호)은 ‘2023 아트사이언스 페스티벌’을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아트사이언스 페스티벌은 매년 10월에 개최되는 국립광주과학관 대표 과학문화축제다.

올해 축제는 ‘가을향기 속으로’를 주제로 전시와 체험이 어우러진 ‘아트사이언스 랜드’, 배우고 즐기는 ‘아트사이언스 아카데미’, 함께하는 이벤트 ‘아트사이언스 펀&펀’ 등 3개의 테마로 구성됐다.

‘아트사이언스 랜드’에서는 흥미로운 향기과학에 대해 알아보는 ‘향기의 재발견’ 전시와 기상기후 사진전, 제5회 매스아트 공모전 수상작

전시, 누리호 사진전 등을 만나 볼 수 있다.

‘아트사이언스 아카데미’에서는 나만의 비누 만들기, 시나몬 가래떡 만들기 등 향기 만들기 체험과 낙엽과 나뭇가지 등 천연재료를 활용한 가을메이킹 체험이 열린다. 광주시 북구청과 함께하는 ‘드론 아카데미 시즌5’, 호남권 과학관과 함께하는 ‘사이언스투게더’와 이색 이동과학버스 체험도 즐길거리 중 하나다.

함께하는 이벤트 ‘아트사이언스 펀&펀’에서는 사이언스 플라마켓이 열린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도구나 장난감 등 중고물품 매매와 교환을 통해 환경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국립광주과학관 개관 10주년 기념 가을향기 음악회(10월14일)가 야외공연장에서 펼쳐지며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된다.

한편 14일과 15일에는 야외에서 광주과학발



지난해 아트사이언스 페스티벌 현장 사진. <국립광주과학관 제공>

명페스티벌도 함께 개최된다. 2023 아트사이언스 페스티벌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or.kr) 확인.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 KT, 강진군 돌봄 어르신들에 AI 케어 서비스

‘농촌형 스마트 안전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 일환

KT 전남전북광역본부(본부장 지정용 전무)가 최근 강진군에 AI 스피커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AI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KT는 강진군의 ‘농촌형 스마트 안전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돌봄이 필요한 20명의 어르신들에게 AI 스피커를 비롯해 IoT 장비(스마트 스위치·모션 센서·문열림 센서)를 제공한다.

KT AI 스피커는 어르신들에게 일상적인 말벗이 돼주거나 음악듣기, 전동 스위치 제어 기능 등을 제공한다. 위급 시에는 음성호출을 통해 KT 텔레캅 관제센터로 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실제로 서비스 출시 이후 호남권 응급환자 구조 사례는 총 22건이었으며, 119 구조대원을 통해 병원에 이송

되는 과정까지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지자체 담당자는 어르신의 움직임이 없거나 문을 열어 놓을 경우 KT AI 케어 플랫폼을 통해 어르신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KT 전남전북광역본부장 지정용 전무는 “AI 스피커는 실제 사용자 분석 결과 불안감 및 고독감 감소 등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어 고령층과 1인 가구에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T AI 케어 서비스는 2021년 전국 최초로 광주시 서구에서 처음 선보인 이후 나주·남원 등 호남권에 공급됐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 신탁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탁

202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사업

##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도움이 필요한 느린학습 아동이 ‘나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교사가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아동 지원내용

- 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중 인지·학습·정서·사회성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
- 전문인력(현장교사) 양성 및 파견**  
느린학습자 특화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지역아동센터 1개소 당 1명의 현장교사가 파견
-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인지·학습 강화 프로그램(주 2회)
  - 정서·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주 1회)

#### 사업수행체계

지원 : 복권위원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복권기금)  
 관리·사업수행 : 남부대학교,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사업참여 : 지역아동센터 40개소, 참여아동 160명

#### 아동지원체계

현장교사양성 > 지역아동센터파견 > 아동 프로그램지원 > 사회 구성원의 기본 역량 향상

본 사업은 남부대학교가 광주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지원으로 경제선지능아동(느린학습자)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라는 사회적 가치 제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복권위원회 | 사랑의열매